

동종 지주골을 이용한 인공주관절재치환술

이용걸 · 이재훈 · 전성욱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본원에서 최근 6년간 시행한 인공 주관절 전치환술 50례중 재치환술을 시행한 레로 동종의 대퇴골두의 지주골 이식을 시행한 2례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1례는 인공주관절전치환술 6년 후 척골 근위부에 심한 골용해 소견을 보여 동종의 대퇴골두를 주두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고 구멍을 내어 척측 component를 삽입하였고, 다른 예에서는 인공주관절전치환술 20년후 상완골 원위부에 심한 골용해 소견을 보여 동종의 대퇴골두를 상완골 원위부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상완부 component를 삽입하였다. 인공관절삽입시 시멘트를 사용하였고 지주골은 금속판으로 고정하였으며 자가골이식술로 골유합 촉진을 유도하였다. 2례 모두 3개월이 지나 골유합의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고, 운동 범위는 척골 근위부의 지주골 이식의 경우 술전 5-85도에서 술후 7개월에 5-100도로 호전되었으며, 상완골 원위부 이식의 경우 술전 0-130도에서 술후 12개월에 0-105도로 다소 감소했다. Mayo Elbow Performance Index에 의한 기능적 평가는 술전 45점과 50점에서 술후 90점으로 두례 모두 양호의 소견을 보였다.

매우 심한 골용해를 보이는 인공주관절재치환술의 경우 과감하게 동종 지주골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한 술식으로 사료된다.